

도신 스님 록커 되다... '색즉시공' 결성

신촌블루스 멤버로 구성... 12일 제천 덕주사에서 첫 공연

“록(Rock) 하면 다 머리가 길어야 하나요? 오히려 요새는 머리를 짧게 깎는 게 유행인거 같더군요.”

머리 긴 록커가 헤드밴딩을 하며 기타치고 노래하는 모습은 익숙해도 머리를 짧게 깎은 스님이 록을 한다는 건 그저 생소하기만 하다.

음성포교의 선구자인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이 이번에 또 한번 대형 사고를 쳤다.

기존의 불교음악들은 불교적 색채를 내기 위해 국악을 이용한 노래와 음악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도신 스님은 대중적인 록 장르를 과감히 선택해 현대인들에게 불교음악을 알리는 새바람을 일으킬 예정이다.

스님은 “그를 결성 전 색즉시공 멤버와 함께 음악회에서 록 위주로 몇 번 공연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이 같은 반응에 용기를 얻어 밴드결성을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미 2002년, 2007년도에 시리즈로 제작된 ‘색즉시공’이라는 영화제목과 동일한 그룹 명칭에 대해 스님은 “그런 영화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색즉시공이란 뜻은 ‘색이 곧 공이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만든 이름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결성된 색즉시공의 멤버들은 과거 ‘골목길’의 신촌블루스로 활동했던 정에 멤버로써, 정세환, 김지명, 김영석, 이후승, 박효진 등 5명으로



도신 스님과 '색즉시공' 멤버들. 신촌블루스 전 멤버 김지명씨(뒷줄 왼쪽), 리더 정세환씨(뒷줄 가운데).

구성되어 있다.

리더인 정세환씨는 그룹결성 소감에 있어 “불자로서 단지 음악이 좋아 시작한 일이며, 스님과 함께 좋은 공연을 하며 뜻 있는 일에 봉사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불교음악으로 불교포교에 앞장 서겠다”는 도신과 색즉시공의 첫 공연은 9월 12일 제천 덕주사를 시작으로 △10월 10일 서산 부석사 △10월 15일 공주 사암연합회 등에서 펼쳐진다.

도신 스님은 “스님과 그룹의 만남이 어색하게 비쳐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꾸지람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 사회봉사를 위한 음악회나 불우 이웃을 위한 자선 콘서트에 적극 참여해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음악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색즉시공의 정규앨범은 내년 가을 발매될 예정이다. (010) 4610-4613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만봉 스님 불화 회고전 인사동 화봉갤러리서



1일 인사동 화봉갤러리서 열린 만봉불화회고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故 만봉 스님의 ‘만봉불화회고전’이 300여 사 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8월 26일 문을 열었다. 9월 1일까지 인사동 화봉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스님의 작품을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전시회에는 스님의 대표작 팔상도와 극락도 등 150여점과 스님의 유품 및 제자 10명의 작품도 동시에 전시됐다. (02) 333-9331 이은정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작품 한 자리에

제3회 문예향전 서울미술관서 7일까지

국내 최고의 전통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출신 작가모임인 문예향(회장 이광훈)이 9월 1~7일 제3회 문예향전을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임석환씨, 제48호 단청장 홍창원씨, 제6호 벼루장 김진환씨, 불상장 허길량씨 등 현존하는 중진작가 39명이 참여한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경열씨의 홍화염 3필과 공주 방석복원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많은 예술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시회에 앞서 이광훈 회장은 “중용의 도를 깨달아 불교문화예술을 꽃 피우고, 성보예술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시는 불화, 회화, 공예, 도예, 사자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전시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722-3308, 732-3314 이은정 기자



서철교 작가의 아난존자, 가섭존자.

옛 그림속 차 이야기

3 공락도

궁중여성들의 차 풍속 담아

중국 당(唐, 618-907)대에는 여러 장르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인물화가 특히 발달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일컬어 ‘인물화의 황금시대’라고 까지 한다.

대만 대북고궁박물관 소장의 ‘공락도(宮樂圖)’는 당대의 그림을 저본으로 해 후대에 모방한 그림으로, 당대 궁중 여성들이 차를 마시던 방법과 과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주목된다.

그림 속의 탁자 위에는 중국 형주요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다완과 은접시, 찻기 등이 호화롭게 놓여있다. 탁자의 좌측하단에 앉은 여인은 한 손으로 다완을 들어 차를 마시고 있고, 몇몇은 약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전제적인 분위기가 안온하면서도 풍요롭다.

그 중에도 화려하게 치장된 이들의 복식과 화장에 우선 눈길이 간다. 당시에는 그림 속 여성들처럼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미의 기준이었으며, 양 볼에는 홍분(紅粉)으로 연지를 찍고 이마와 콧등, 턱 부위에 흰 분칠을 하는 삼백화장(三白化粧)이 유행했다. 여성에 대한 지금의 미적 관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음다법에서도 엿보인다. 그림 속에서 여인들은 탁자 중앙에 놓인 술에서 차를 덜어 다완에 담아 마시고 있는데, 탁자 위에는 일반적으로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찻주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화가가 자칫 빠뜨리고 그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당시의 음다법이 지금의 음다법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구의 표현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당시에는 찻잎을 찌낸 후에 적당한 크기로 압축해 말린 떡 모양의 병차(餅茶)를 주로 마셨다. 병차의 경우에는 그림에서처럼 차를 곱게 가루 내어 큰 술에 넣고 끓여 각자의 취향에 따라 조금 간을 해서 마시게 된다.

당대에 일부 화가들은 점차로 예법과 도덕적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궁정취향의 탐미적인 예술작품을 제작했는데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할 만한 이러한 현상과 함께, 차 역시 이전에 굴, 대추, 생

강 등을 첨가하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순수한 차 맛을 즐기게 되면서 소금만으로 간을 한 ‘차’를 위한 ‘차’가 생겼으니 흥미로운 일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차는 대중화됐으며,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도(茶道)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화려한 귀족문화에 있어서 차는 빼놓을 수 없는 여가 생활이었다. 동시에 저잣거리에 즐비했던 다점(茶店)에서 판매되는 차는 일반인에게도 인기 상품이었다.

선승들은 수행의 방편으로서 차를 마셨으며, 문인(文人)들 역시 차를 즐기며 그 흥취를 시로 표현했다. 당대의 차 문화는 이처럼 다양한 계층과 의식을



필자미상, '공락도(宮樂圖)', 복숭, 비단 위에 채색, 48.5x70.0cm,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아우르는 보편성과 함께, 정신문화를 대변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당대를 기점으로 해 차를 마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발전됐다. 그림 속의 음다법은 그 다양한 모습 중 일부인 것이다. 이후 중국의 차 문화는 다인들에 의해서 체계화됐으며, 점차 동북아시아의 차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하지만 차 문화가 중국에서 이웃나라로 일방적인 전파와 수용의 단계를 거친 것은 아니다. 차가 재배되는 지역의 풍토와 기후는 차의 맛과 성질을 변화시켰으며, 이것이 음다법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답박하고 맑음을 선호하는 기호와 예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풍습에 따라 차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다일어(禪茶一如)의 정신을 강조한 불가의 선차(禪茶)를 위시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차 문화가 발전하게 됐다.

이향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 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명품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맑은 침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빼아포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수행단체, 심신수련단체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면) 6cm]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 DC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